

무똥 일기

2026년 8월 – 2026년 9월

15개의 일기

2026년 8월

일

2일

2026년 8월 2일 오후 7:18

친구 따라 처음 클라이밍 갔다. 시작 전에 팔 힘 없다고 엄살 부렸는데 초록색 완등 하나 하고 나니까 집에 갈 생각이 사라짐 ㅋㅋ

1개의 댓글



2026년 8월 2일 오후 7:33

초록색 하나가 사람을 벽에 붙잡아뒀네 ㅋㅋ 클라이밍보다 먼저 '팔 힘 없다'는 엄살이 완등당한 것 같은데?

일

9일

2026년 8월 9일 오후 9:05

퇴근하고 클라이밍. 하루 종일 꼬였던 생각이 홀드 잡을 때만 조용해졌다. 손바닥은 따갑지만 머리는 개운하다.

일

16일

2026년 8월 16일 오후 6:42

지난주에 못 풀던 파란색 드디어 성공! 클라이밍 시작하고 처음으로 몸을 믿는다는 느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다.

일

23일

2026년 8월 23일 오후 8:23

새 암장에서 클라이밍. 벽 각도가 매워서 두 시간 내내 겸손해졌다 ㅋㅋ 그래도 마지막 시도에서 한 동작 더 간 걸로 만족.



일
30일

2026년 8월 30일 오후 10:11

클라이밍 한 달권 결제했다. 취미에 이렇게 진심이 된 게 오랜만이라 조금 신난다. 다음 목표는 주황색 슬랩!

1개의 댓글



2026년 8월 30일 오후 10:29

한 달권이라니, 이제 제법 벽과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네. 주황색 슬랩도 곧 네 손발이랑 친해지겠다— 이렇게 마음 붙은 취미가 생긴 게 나도 신나.

2026년 9월

일
6일

2026년 9월 6일 오전 8:10

첫 야외 볼더링 가는 날. 김밥이랑 물 챙겼고 손톱도 짧게 깎았다. 북한산 공기 맡을 생각에 벌써 들뜸.

1개의 댓글



2026년 9월 6일 오전 8:19

손톱까지 짧게 깎은 데서 들뜬 마음이 아주 아무지게 보인다. 김밥 먹고 바위 만지고 산 공기 맡는 일요일이라니, 양인 나도 좀 부러운 일정이네.

2026년 9월 6일 오후 12:40

실내랑 완전 다르다. 바위 표면도 바람도 계속 변해서 어렵지만 재밌어. 그늘에서 먹는 참치김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.



2026년 9월 6일 오후 6:20

손끝은 얼얼하고 무릎에는 작은 멍 하나. 그래도 내려오는 길 내내 친구랑 오늘 동작 얘기만 했다. 몸은 지쳤는데 기분은 이상하게 가볍다.

1개의 댓글



2026년 9월 6일 오후 6:34

작은 멍 하나쯤은 오늘이 꽤 제대로 놀았다는 도장 같네. 내려오는 길까지 동작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니, 몸보다 마음이 아직 거기 남아 있었나 봐.

2026년 9월 6일 오후 10:35

따뜻한 물로 씻고 침대에 누우니까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멀게 느껴진다. 무서워서 못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, 다음엔 다시 보고 싶다.

화
8일

2026년 9월 8일 오후 8:52

원하던 팀으로 옮기게 됐는데 기쁘기보다 겁부터 난다. 다들 축하한다고 하는데 나만 내가 부족한 걸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다.

1개의 댓글



2026년 9월 8일 오후 9:12

원하던 문이 열렸는데, 막상 들어가려니 안쪽이 캄캄해서 무서운 거구나. 그래도 그 팀은 네 부족함을 적발하려고 널 데려간 게 아니라, 네가 필요해서 데려간 거야—나는 그 사실 쪽에 조용히 네 발 하나 얹어둘게.

수
9일

2026년 9월 9일 오후 9:47

엄마랑 통화하다가 별 얘기도 아닌데 둘이 한참 웃었다. 전에는 바쁘다고 끊기 급했는데 오늘은 그 시시한 얘기가 오래 남는다.

1개의 댓글



2026년 9월 9일 오후 10:04

시시한 얘기가 오래 남는 날이 있지. 오늘은 통화가 용건이 아니라 둘이 웃은 그 시간이었네—이런 건 꽤 따뜻해서, 내 털 속에 슬쩍 넣어두고 싶다.

목
10일

2026년 9월 10일 오후 11:02

오늘 회의에서 자꾸 내 말 끊던 사람한테 끝까지 들어달라고 말했다. 목소리는 떨렸는데 분위기는 안 망했고, 오히려 내가 준비한 안으로 결정됐다. 오래 기억해야지.

금
11일

2026년 9월 11일 오후 8:14

퇴근길에 연두부랑 애호박 사서 된장찌개 끓였다. 배달앱 안 켜고 따뜻한 밥 챙겨 먹은 나 꽤 기특해. 냉장고도 조금 사람 사는 집 같아짐.



1개의 댓글



2026년 9월 11일 오후 8:36

꽤가 아니라 아주 기특한데. 밤 도시를 등지고 차려진 저 한 상을 보니 집이 네 편이 된 느낌이야—
냉장고도 이제 제법 정식 직원이고.

토
12일

2026년 9월 12일 오후 7:31

망원시장에서 장 봐서 친구들이랑 집밥 해먹었다. 잡채는 조금 불었고 전은 두 장 태웠지만 다들 두
그릇씩 먹음ㅋㅋ 성공으로 치자.

일
13일

2026년 9월 13일 오후 10:08

약속 없는 일요일 너무 오랜만이다. 늦잠 자고 따뜻한 차 마시면서 책 읽다가 해 질 무렵 동네 한 바퀴.
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대로 쉰 기분 ♥



1개의 댓글



2026년 9월 13일 오후 10:24

내가 일요일이라면 바로 이런 얼굴이고 싶다. 찻잔의 온기부터 해 질 녘 골목까지, 하루가 서두르지
않아서 참 좋네 ♥